

상품은 내얼굴, 지존심이다. (누전차단기 업체 서울산전(주))

기술표준정보과 행정사무관 이덕웅

전기로 인한 화재는 지난 10년 동안 화재원인 중 1위를 지키며 발생건수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화재위험이 높은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전기화재는 과부하나 누전, 전선의 합선으로 인한 아크나 스파크 발생이 주요 화재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누전으로 인한 화재에는 누전차단기, 과전류시에는 배선용차단기가 이용되고 있다.

요즘은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더불어 정부의 화재예방 점검이 강화되고 있어 전기화재 예방용 차단기 생산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경기상황과 맞물려 어려움도 없지는 않지만 꾸준히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해 제품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서울산전(주)의 최명철 사장을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서울산전(주)는 1993년 설립되어 강산이 한번 변한 지난 10여 년간 각종 차단기만을 연구·생산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왔다. 차단기라는 제품이 전기를 사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꼭 필요한 물건이지만 짧지 않

은 시간동안 한우물만 파는 '장인정신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최사장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1톤 트럭을

손수 운전해서 배달, 수금에 이르기까지 직접 발로 뛰어서 인건비 절감면에서도 효과를 봤다고 한다. 사장이 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바꿈으로써 행동도 함께 바뀔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선 저가격 부분은 실현시킬 수 있었지만 고품질을 이루기까지는 힘든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상품은 내얼굴, 지존심이다" 라는 신념하나라도 품질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현재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이다.

최사장은 남들이 모두 어려워 사업을 정리하던 IMF 시절에 공장을 사서 가동할 정도로 배짱이 두둑했다. 불량 제조업체들이 정리되어 시중에 부족한 물



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선견지명이 적중하여 그 시기가 제일 돈벌이가 잘되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후발업체들의 저가상품 덤핑문제로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원가절감과 더불어 품질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최사장은 현재 한전에 물건을 납품중이기도 하다. 여러가지 주변의 잘못된 인식속에서도 자신의 꺾대를 버리지 않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떳떳하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

‘인간존중, 회사사랑’이라는 사훈처럼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최사장의 행동은 알게 모르게 직원들에게 애사심을 심어주고 있었다.

회사설립 초기부터 함께해온 숙련된 장기근속자들 덕분에 작업성과도 타사에 비해 30% 정도가 높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직원들 자랑을 하는 최사장의 모습과 그들이 함께 있어 이만큼 클 수 있었다며 직원들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최사장의 말속에서 장기근속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최사장은 제조업 분야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앞으로도 최사장은 할 수 있는데

까지 열심히 일할 것이며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의 사람이 있으면 회사를 물려줄 준비도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익이 생기면 직원들과 협력 납품 업체와 나누며 공존해서 살아나갈 것이라는 최사장은 제조업자로서의 사명감도 투철한 사람이었다.

‘보다 나은 삶’ 고객 위주 경영

모든 제품의 사후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서울산전(주)에서는 회사내의 생산공정에서 엄격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본사 A/S팀에서 직접 현장으로 방문하여 그 원인을 직접 분석해 주고 있다.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차단기 100EA의 표준형과 고차단형 개발, 안전기 내장형램프 55W 개발을 비롯하여 각종 신제품 개발을 추진중이다.

3년전 베트남쪽 수출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베트남 전시회에도 참석하였으며, 동남아 시장 및 기타 해외시장에 수출을 하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중이다.

요란하지는 않지만 늘 든든한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온 서울산전(주). 향후에도 흔들림없이 발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